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피하는 가운데, 예수는 물러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자를 부르는 등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힘쓴다(3:7-19).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뿐 아니라 예돔, 요단 강 동편(테가볼리), 두로, 시돈 등 사방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데, 이들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후에 보듯이 가족과 친지, 이웃과 제자들 모두 예수를 배척한다(3:21; 6:3; 14:50). 다만 당시 로마제국의 지배체제 하에서 군중들이 슬픔과 아픔을 공감했기에,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안/대항 공동체

예수께 모여든 사람들 이야기는 아마도 마가 공동체를 반영한 듯 하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아직 갈릴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마가복음 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타고 요단 강 동편 테가볼리 지경에 이른다(1:39; 5:1). 그렇다면 여기 요약된 기록(3:7-8)은 마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독자들은 예수의 시대(30년대)와 마가 공동체의 시대(70년대)를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이다. 혹은 후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서 이야기는 내게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성서가 나의/우리의 말로 재해석 되어야 하는 이유다.

예수는 열 두 사도를 택한다(3:12). 제자(μαθητής, learner, disciple)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46번 쓰이는데 반해, 사도(ἀπόστολος, deligate, messenger)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드물게 쓰였다(3:14; 6:30). 여기 쓰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특징인물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전 12:28). 그럴지라도 바울 서신 보다 후대에 쓰인 마가복음이 제자라는 말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점은 그런 특권층에 대한 불신, 거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왜 열 둘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왕권체제를 따르지 않도록 12 부족으로 연합체제를 갖춘 것에 기인한다. 당시 로마제국 하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특권층이 다스리는 체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것이 열 둘이라는 상징적 숫자의 의미다. 바리새인의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과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대안/대항공동체 운동의 하나였다.

열 둘을 택한 이유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지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명은 전도함과 귀신축출을 포함하는데 곧 예수가 늘 해오던 일이다((1:39; 6:7; 9:37).

첫째,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혈연, 지연 혹은 사회적 지위, 권력에 따라 형성된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는 가족과 정치—고대 근동의 두 개의 사회구성 단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3:35). 앞에서 살펴본 예수의 복음을 C.C.C. 머리 문자로 표현할 때 새로운 대안 공동체 형성(Create)이다. 예수의 복음을 지·정·의(知·情·意)면에서 볼 때 의(意)에 해당한다.

둘째, 예수는 제자들이 전도(傳導)하도록 명하는데, 곧 도(道, λόγος, 로고스)를 전함이다(2:2). 도를 전하려면 먼저 도를 알아야 하며, 이것이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의 복음’(1:14)이자 사람들이 목격한 “새로운 가르침”(1:27)이다. 지(知)적인 영역으로, 자성(깨달음)의 영성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도전(Challenge)으로 나타난다.

셋째, 제자들에게 귀신축출의 권세를 준다. 여기서 귀신(δαιμόνιον)은 더러운 영과 같은 의미다(6:7).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옳게 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데 쓰인 잘못된 모습이다. 지배체제에 물든 예고의 욕심에서 벗어나, 그 피해자를 돌보는 정(情)적인

행위가 보살핌이다(Care).

주목할 점은 제자들을 부른 이유에 병 고침이 나타나지 않는데, 병 고침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병 고침과 귀신축출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지배체제의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는 점에서 병 고침과 귀신축출은 같은 말이다. 병은 그 살인적 제도 하에서 나타난 증상일 뿐, 보다 뿌리 깊은 문제는 그 병을 일으킨 체제(system)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병과 함께 오는 불필요한, 부당한 아픔을 감싼다. 결국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

꾸짖음과 경계

마가복음에는 ‘꾸짖다’(ἐπιτιμάω, rebuke)는 말이 총 9번 나온다. 더러운 영을 꾸짖고(1:25; 3:12; 9:25), 바람을 꾸짖고(4:39), 사람을 꾸짖는다(8:30, 32, 33; 10:13, 38). 그런데 3:12에는 더러운 영을 ‘경계했다(warned)’고 번역한다. 왜 그럴까? 더러운 영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것을 역자들이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혹은 학계에서 말하는 ‘메시아 비밀’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자를 고친 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든지 혹은 제자들에게 주의할 요할 때 썼던 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διαστέλλω, 5:43; 7:36; 8:15; 9:9). 복음서에서 예수는 더러운 영을 다만 꾸짖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가 더러운 영을 꾸짖은 이유는 뭔가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혹은 친한 척 하는 행위가 역겨운 것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러운 영이 예수를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두고 조정하려는 점을 싫어한 탓이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는가에 따라, 또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하느님의 아들’(3:11)이 기존 질서에서는 황제, 왕, 통치자를 의미하지만,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예외가 아니라, 모범이다.

하느님 나라와 가족

하느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초대된다. 이것이 기존의 가족, 정치제도에 맞선 대안공동체다. 마가복음의 구성이 재미있다. 소위 ‘샌드위치 기법’(Sandwich technique)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문학적 기술 방식이다(3:20-35; 4:1-20; 5:21-43; 6:7-30; 11:12-21; 14:1-11; 14:17-31; 14:53-72; 15:40-16:8).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서로 해석의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막 3:20-35는 가족의 오해(3:20-21), 이데올로기 대립(3:22-30), 새로운 가족/대안공동체(3:31-35) 순으로 짜여 있다. 중간에 삽입된 이데올로기 대립은 하느님 나라와 로마제국 간의 충돌이다. 로마제국은 비유 속의 나라(kingdom)가 뜻하는 바고, 집(house) 역시 왕조(dynasty) 혹은 성전(temple)의 지배체제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독재체제가 만연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복음서가 경고하는 mammon(μαμωνᾶς, wealth)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마 6:24; 눅 16:13).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목숨을 끊고, 온갖 비리와 횡포가 물질만능주의에서 오는 병폐다. 그것을 넘어설 가치관(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도 체념하고 살거나 (혹은 죽거나) 적극적으로 악한 지배체제를 떠 받든다. 예수가 한 일이란 이런 물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과 ‘자유’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하느님 나라 운동이다.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한 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의 한 일을 귀신의 일로 매도한다. 이는 지배체제의 권력자들이 도전을 받을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자신들은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악의 세력으로 간주한다. 마치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그 체제에 도전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매도한 것과 같은 수법이다. 교회에서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함도 같은 발상이다. 예수의 병 고침, 귀신축출이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의 업적을 폄하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전하는 하느님이 귀신들의 왕이란 말인가? 이것이 성령을 훼방하는 자에게 사함이 없다는 말의 근거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기서는 제도적인 죄, 곧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들이 예수가 더러운 영에 쌓였다고 하자 예수가 대항하여 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 맥락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읽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번역본을 살펴보자.

- KJV: All sins shall be forgiven unto the sons of men, and blasphemies....
- NRSV: people will be forgiven for their sins and whatever blasphemies they utter
- NIV: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 개역: 사람의 모든 죄는 ... 사하심을 얻되
- 표준새번역: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 용서를 받을 것이다
- 공동번역: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헬라이어 본문에서 주어는 단순히 “모든 죄와 훼방”(all sins and blasphemies)이다. 그것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번역본은 하나같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본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서 읽으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all sins against the sons of human beings)는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에서 본 문둥병자의 경우(1:44)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τοις υιοις των ανθρωπων)라는 구절이 애매하다. 위에 열거한 모든 번역은 ‘사람들을 위하여’(for)로 읽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에 반(反)하여’(against)란—사람들에게 불이익을 행한—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라는 뜻이다.

용서의 대상이 마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지배체제 수호자들을 지적해 말했을 수도 있다. 마가 공동체 입장에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자의 경우 죄란 마가 공동체가 진 빛이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정죄된 상황이고 신성모독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의무(십일조) 불이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번역본에 반영된 이해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그들을 위해’(to/for them) 용서해 주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죄는? 그것도 마가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예수가 처한 논쟁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선언이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못된 짓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근본 철학, 가치관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보다 심각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씌운 죄명이다(2:7; 14:64). 그러나 지배체제—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는 신성모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했다. 예루살렘 성전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업신여기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예수가 한 일은 성령으로 행한 것인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더러운 영과 동일시함으로써 예수를 배척했다. 마가복음 신학에서 볼 때 하느님의 복음을 훼방한 셈이다.

예수의 비유는 서기관들이야 말로 더러운 영에 물든 사람이라고 맞받아친다. ‘사탄’, ‘나라’, ‘집’, ‘강한 자’ 모두 하나를 가리킨다(3:23-27). 나라(kingdom)가 정치적 영역을 표시한다면, 집(house)은

왕조(dynasty) 혹은 성전(temple)을 일컫는다. 11장에서 예수는 자신이 다윗의 왕조에 비견되는 것을 거부했고(11:35-37), 그들의 집(성전)에 들어가 강한 자를 쫓아내고(ἐκβάλλω, 3:23; 11:15), 물건을 빼앗는다(σκεῦος, 3:27; 11:16). 중국엔 예루살렘 성전체제가 무너진다(13 장).

신학 다시 하기

성서의 기록(글)은 그 시대의 특수한 언어 그리고 시대정신(Zeitgeist)을 담고 있다. 성서 기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찍듯 정확한 기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듯 독자적인 신학을 이야기에 담아 전한다. 그 사건(경험)이 갖는 주관적 특성 때문에 사건 자체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문화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경험은 보편적인 것이다. 의도(가치)는 글을 쓰는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자유, 행복, 해탈 등 우리들이 염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성서가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사건(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경험 속에만 소통이 가능하다. 성서의 사건(경험)을 우리는 지금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신학 다시하기를 통해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성서와 전통,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어떤 의도(가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굳이 정형화된 틀—특정 종교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야만 할까? 종교 간의 대화에 꼭 필요한 질문이다. 또 하나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맘몬(자본주의, FRB)을 넘어서, 이 가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서를 오늘의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고 토착화 신학이 요구되는 이유다.

마가복음이 배경으로 한 기존 질서(체제)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자 핵심(insiders)이고 정치는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한다. 혈연과 지연, 학연과 인맥을 배경으로 소수의 권력층은 자신들이 만든 지배체제를 ‘가족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체념으로 체제에 물들어 살거나 그 체제에 동조함으로써 왕따를 면한다. 막 3:20-35은 가족과 체제로부터 배척당한 예수가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재미있는 것은 3:20-21에서는 예수가 밖에 있고 집안 식구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의 말—지배체제가 심어준 생각—을 되풀이 한 결과다. 이야기 결론(3:31-32)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친족이 밖에 있고 예수는 안에서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있다.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생각이다. 이렇게 신학(하기)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마가/예수/하느님의 복음을 중상, 비방, 모욕하는 자로 이해된다. 성령과 더러운 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갈린 두 마음이다.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그 한 예다(8:33).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할 일은 제국주의의 시녀가 된 신학에서 성서적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현대인들이 외면하는 교회위주 신학에서 성서를 오늘에 맞게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예수께 영생을 구하는 서기관에게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고 되묻는 것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막 8:29)라는 물음 속에 담긴 가치관이다.

생각해 보기

1. 오늘날 우리가 타파해야 할 지배체제는? (FRB, 대기업 횡포)
2. 나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